

웃음거리 된 '예술의 거리 활성화'

광주시, 8억원 투입 특화 사업 ... 일회성 행사 "예산 낭비" 빈축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 예술의 거리 특화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시비와 국비 8억원을 투입,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사업의 핵심지구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최 측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 상인들조차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시와 사업 주관처인 광주문화예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시민 참여 저조, 입주자들도 외면

예술의 거리 특화 사업은 공예난장(1억 3천400만원), 예술마니아의 세계(1억6천400만원) 등 6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가 극히 저조, 예술의 거리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예술마니아 세계' 일환으로 광주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가요페스티벌의 참석자들은 60~7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참가자 25명과 주최측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 관객은 30여명도 되지 않았다.

2일 예술의 거리 상계갤러리에서 열린 골동품 시민강좌의 수강생은 모두 4명. 그나마 3명은 강사와 주최측 진행요원이었고 순수 수강생은 한명에 불과했다.

3일 YMCA 강당에서 열린 '예술의 거리 포럼'도 마찬가지였다. 예술의 거리 주민들과의 사랑방 공동체 구성, 시민과의 의사소통 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날 참가한 인원 40여명

가운데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 포럼 주제가 '전시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예술가들의 참여는 전무했다.

홍보도 문제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지 알 수가 없다. 나인 갤러리에 문을 연 '예술의 거리' 인포메이션센터에는 안내 팸플릿 몇장만 놓여있을 뿐이고, 이번 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도 오픈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 예산 집행 늦어 줄속 추진 자초

이번 사업은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저속 운영이 불가피했다. 시는 8억 원이 시설투자 등이 아닌, 문화콘텐츠 확보 등에 사용되는 예산임을 감안,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경쟁력 있는 기획을 발굴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사업 개시 6개월이 지난 7월에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문진위를 사업보조자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도 늦어 홍보 문제 등에서 줄속 운영을 자초했다. 여기에 예술감독마저 갑자기 교체되면서 일관성도 잃어버렸다.

입주 상인들의 불협화음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상인들은 예술의 거리 특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구성 등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도 '소음'에 불과하다며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상인들 역시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해 관계만을 따지면서 사업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시민참여 저조 등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조만간 외부·내부 평가를 거쳐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사업단, 상인들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이 4일 조선대 중앙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인 정이사 선임 등 조선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정·비리 옛 경영진 복귀 땐 파국”

조선대 범대위 “민주적 정이사 선임” 촉구

‘민주적 정이사 재취를 위한 범조선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4일 조선대 중앙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조선대 구성원의 입장을 반영해 민주적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학교 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정, 비리로 얼룩진 옛 경영

진이 정이사에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선대 구성원의 의견이자 지역민의 정서”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가 옛 경영진들의 이해를 반영하려할 경우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분위는 5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조선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분위의 결정이 조선대 학생들이 안정적 여건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학교가 파국으로 갈지 분수령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분위는 4일 전체회의를 갖고 조선대와 세종대 등 학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4개 사립대의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일대 “TV 수신 불량” 항의 소동

모 케이블방송 사전 공지 없이 선로 교체작업

광주지역 모 케이블방송이 전체 고객을 상대로 사전 공지 없이 케이블선로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TV가 수일째 나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광주시 남구 일대 가입자들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수일째 TV 수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해당 케이블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남기거나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아이디 sr04981)”, “고객의 항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언제부터 TV를 볼 수 있는냐”는 식의 항의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다.

신모(83·광주시 남구 양림동)씨는 “수일째 TV가 나오지 않는 데다가 신고나 항의 전화도 케이블방송 측이 제대로 받지 않아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그동안 모 통신사 케이블을 빌려 사용하다가

최근 입차기간이 끝나 지난 달부터 자체 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전에 방송 채널을 통해 공사를 알리는 자막 공지를 했으나 고지 불량이 이어졌다. 서둘러 작업을 마치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케이블방송은 광주시 동·남·광산구 지역 가입자에게 유선방송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방영 채널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끊기면 유선방송(케이블 채널)은 물론, 공중파 방송까지 수신상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8천여명 손배소

11일, 5년만에 선고 ‘촉각’

광주공항 인근 주민 수만명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소(訴) 제기 5년 만에 열린다.

광주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사봉관)는 오는 11일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8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2004년 5월 강모씨 등 주민 782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5년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별다른 이연이 없는 한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법원이 국내 비행장과 공항 주민들에 대한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광산구 1만3천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청구소송에서 215억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소송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 집앞 마을 가꾸기’ 박람회 열린다

주민들 스스로 주변 공터나 골목길을 산뜻하게 바꿔낸 사례들이 오는 5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전시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내 집앞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공간을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개선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DJ센터에 29개 전시

와 푸른광주21협의회가 공동 추진해왔다.

올해만 사업비 6억3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는 ‘남광주 이야기’, ‘광복길 한 켠 텃밭 가꾸기’ 등 29개 사업의 성과와 모델들이 선보이게 된다.

전시장에서는 사업추진 담당자가 직접 각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며, 이날 관람객들에게는 동구 계림동을 비롯한 광주지역 22개 동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동네지도’도 배포된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7분 / 해질 17시 34분 / 달뜨기 19시 18분 / 달짐 09시 31분

기울엔 책 선물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구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호린 뒤 맑음	구름 많음	10/20℃
목포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0/18℃
여수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1/18℃
완도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1/18℃
구례	구름 많음	구름 많음	6/19℃
해남	구름 많음	구름 많음	8/19℃
장흥	구름 많음	구름 많음	8/19℃
고흥	구름 많음	구름 많음	8/19℃
순천	구름 많음	구름 많음	8/19℃
영광	구름 많음	구름 많음	9/20℃
진도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1/19℃
전주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0/19℃
남원	구름 많음	구름 많음	7/19℃
목성도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7/18℃

구분	종형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	낮음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	주의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	주의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2	12/24	14/19	13/21	12/21	10/19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신원로 학부동: 605-1114 / 대학로: 605-1115

GS칼텍스

나눔에너지로 여수에 명품 문화예술공원을 만듭니다

2009년 11월 5일 GS칼텍스가 여수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시작합니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